

사회

봄철 학교 식중독 비상

일주일새 광주지역 고교 2곳 34명 설사·복통 증세

일주일 새 광주 지역 고등학교 2곳에서 집단 급식을 먹은 학생 수십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

먹었다고 보건소는 전했다. 보건소는 해당 학교서 최근 6일 간의 보존식과 식기류 등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급식종사원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반·샐러드·단무지무침 등을 먹었으며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건소는 대광여고측이 '4명의 학생만 병원에 다녀왔다'고 축소보고해 시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보존식 등을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다.

8일 광주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시 남구 인성고 급식실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노모(18·3년)군 등 3학년 학생 17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급식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매점 등에서 간식을 먹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1회분만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며, 장시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 서늘한 곳에 음식물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분쟁 최소비용으로 90일내 끝낸다

분쟁조정중재원 출범...처리 시간 축소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소 비용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관이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양쪽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감정부가 배당된 사건을 조사한 후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넘긴다. 이후 조정부가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우 2만2000원,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이다. 조정 대상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출범하는 4월8일 이후의 사건으로 그 이전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광주교육청 "사학 자율성 침해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 이사장협의회회의 "사교육정책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본보 4월 6일자 7면)과 관련, "납득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회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자율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운영과 미흡한 경제장치로 인해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교원 선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해 공개 전형 시 국·공립학교의

교원채용 방식을 존중하고 시험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법원합의회의는 5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방법 임용지침 중지, 사립교원 명예퇴직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송재필 선생 서거 61주기 기념 학술 세미나'가 지난 6일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 기념공원 내 계심헌 전시관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사)송재필서재필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추모식, 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서재필박사 서거 61주년 학술세미나 "실천적 삶으로 민족사 방향 제시 끊임없는 변혁 추구 개혁 사상가"

송재(松齋·1864~1951) 서재필 박사 서거 61주년을 맞아 서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추모식과 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 보성 서재필기념관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사)송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갑신정변(甲申政變)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서 박사의 역할과 독립운동의 궤적을 새롭게 조명했다.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광주 남구청, 이달말까지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9일부러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저수지 주변이나 관내 하천을 활용하여 수역사업 창출 ▲더불어 잘사는 행복나눔 복지공동체

Weather forecast for today (April 9th) showing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wangju, and Jeonju, along with a map of Korea and a 5-day outlook.

Advertisement for '가슴 속 얘기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It's so good to have a mom I can share my heart with). It features a testimonial from a mother and information about a support program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Large advertisement for '세기보청기' (Segistar Hearing Aids). It features a cityscape background, the Segistar logo, and text promot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is provided.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ISO, CE, etc.), contact numbers for Segistar (1588-8499), and a list of regional distributors across different parts of Korea.